



광주·전남 아들·딸 선전... 그대들이 자랑스럽다



사이클 나아름



체조 도마 여서정



육상 여자 100m 허들 정혜림



근대 5종 전용태



KIA 타이거즈 소속 야구 대표팀 양현종·안치홍·임기영

나주출신 나아름, 사이클 4관왕

여흥철 딸 여서정, 체조 도마 금

정혜림, 한국육상 유일한 금

야구 양현종·안치홍·임기영 맹활약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이 2일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종합 3위로 대회를 마친 한국선수단에는 광주·전남지역 출신과 소속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사이클 4관왕의 나아름(28·상주시청)과 여자

육상의 정혜림(31·광주시청), 펜싱의 강영미(33·광주 서구청) 등을 비롯해 여자 도마의 여서정(16·경기체고), 야구의 양현종(동성고 출신), 이정후 등이 대표적이다.

나주 출신의 나아름은 여자 개인도로, 도로독주, 단체추발에 이어 매디슨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사이클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4관왕에 올랐다.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포인트 레이스 결승에서 2위로 달리던 중 1위 선수에게 휩쓸려 넘어지면서 선수 생명의 위기도 있었지만, 나아름은 특유의 끈기와 노력으로 이번 대회 최고 성적을 작성했다.

개인도로에서 나아름의 역주를 도왔던 광주 출

신의 이주미(29·국민체육진흥공단)도 여자 단체 추발과 개인추발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정혜림은 금빛 질주로 한국 육상의 아시안게임 노골드의 한을 풀었다.

정혜림은 여자 육상 100m허들 결승에서 13초 2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비록 자신의 목표였던 12초대 진입에는 실패했으나 한국 육상에 길이 남을 귀중한 역사를 장식하는데 충분했다.

펜싱 강영미는 서른셋의 나이에 노장 투혼을 발휘하며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만년니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용태(23·광주시청)는 근대5종 남자 개인전에 출전해 1472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남·북 단일팀으로 화제를 모았던 카누 용선에는 조민지(20·전남도청)가 출전해 금메달을 합작했다.

양궁의 이은경(20·순천시청)은 리커브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볼링에서는 최복음(31·광양시청)과 김현미(30·국석군청)가 각각 남·녀 6인조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야구와 축구에서 지역 출신의 선수들이 다수 참가했다.

지난 1일 일본과의 결승에서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KIA 타이거즈의 투수 양현종(30)은 동성고, 포수 양의지(31·두산베어스)는 진흥고 출신이다. 또 임기영(25)과 안치홍(28)은 KIA 타이

거즈 소속 선수로서 이번 대표팀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서석초에서 야구를 시작한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인 이정후(20·넥센 히어로즈)도 우익수로 대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금메달을 확정했다.

축구 대표팀의 금메달 질주에는 광주 FC 소속의 나상호(22)와 이승모(20)와 금호고 출신의 김정민(19·FC 리퍼블)이 있었다.

한편, 한국 여자 체조 32년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여서정은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도마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광주 출신의 여흥철(47·경희대 교수)의 딸로 대를 이어 아시안게임 정상에 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축구·야구, 같은 金 엇갈린 시선

축구, 인맥 논란 실력으로 놀려 국민 응원...야구, 병역면제 팀 논란

야구와 축구대표팀의 메달색은 같았지만 이들을 향한 시선의 온도 차는 컸다.

지난 1일 한국 스포츠의 투톱으로 꼽히는 야구와 축구는 나란히 '한일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결과는 동일했지만 과정과 축하 인사는 달랐다.

'병역 면제' 논란으로 대회 내내 눈총을 받았던 선동열호는 실업 선수들이 주축이 된 일본에 3점을 만들어내는 데 그치며 '그들만의 축제'를 끝냈다. '인맥 축구' 논란을 일찌감치 날린 김학범호는 연장 혈투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앞선 2014 인천 대회에서도 불거졌던 야구대표팀의 '병역 면제' 논란은 이번 대회에도 핫이슈가 됐다.

전임 감독으로 야구 대표팀을 이끈 선동열 감독은 '최강 전력'을 기준으로 내세우며 아마추어 선수를 단 한명도 엔트리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군입대가 발동의 불이 된 LG 오지환과 삼성 박해민 등이 대표팀에 발탁되며 논란을 키웠다. 약물 복용에 따른 징계 전력이 있는 김재환(두산)도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면서 야구팬들의 빈축을 샀다.

앞뒤가 다른 기준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꾸렸지만 결과는 부끄러웠다.

대만과의 예선 첫 경기에 1-2패를 당했고, 홍콩과의 예선 3차전에서도 월드컵게임승을 이루지 못하고 9회까지 가는 승부를 벌여야 했다.

중국과의 준결승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도 '최강 전력'다운 화끈한 공세는 없었다. 결승전에서는 겨우 4안타로 3점을 뿜어내는 데 그쳤다.

앞선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멀티 볼' 판정을 받으면서 2차 엔트리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던 KIA 부동의 2루수 안치홍이 이번 대회에서는 2009년 이후 처음 3루수로 두 경기를 치르는 옷지 못할 장면도 연출했다. 오지환이 장염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유격수를 맡은 황재균(k

)을 대신해 3루로 이동한 것이다.

대표팀 타선의 핵심 선수가 된 '예비역' 안치홍은 헤드샷에 맞고도 이번 대회 6경기에서 모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결승전 결승타를 만들면서 '병역 브로커'가 됐다.

'챔피언십 참가 선수 우선 선정'이라는 기준을 내세우고 선발하지 않았던 이정후(넥센)는 대체 선수로 뒤늦게 합류해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력으로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선동열호는 패배와 졸전 뒤의 모습에서도 김학범호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제구, 컨디션, 시절 낙후, 부담감 등으로 변명을 이어왔던 야구 대표팀과 달리 김학범 감독은 충격적이었던 말레이시아전에 대해 "내 탓이오"를 외치며 패배를 보약으로 삼았다. 바레인전 대승으로 방심했던 축구대표팀은 말레이시아전 1-2 패배 이후 전열을 재정비하며 우승까지 내달렸다.

'인맥 논란'도 사령탑의 확고한 의지와 결과로 깔끔하게 날려버렸다.

성남 감독 시절부터 봐왔던 황의조(김바 오사카)의 가능성을 보고 소신껏 기회를 준 김 감독은 '득점왕' 황의조의 활약 속에 우승팀 감독이 됐다.

두 경기 헤트트릭에 빛나는 황의조와 차원이 다른 실력으로 공격을 풀어 준 손흥민(토트넘), 월드컵의 기세를 이어 철벽 수비를 선보인 조현우(대구)가 최고의 와일드카드(23세 이상)가 됐고, 이들의 활약 속에 23세 이하 선수들도 패기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혔다.

매 경기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던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도 명승부를 연출하면서 57.3%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찍었다.

전·후반 득점에 실패하면서 연장 승부로 향한 한국은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의 빠른 판단력으로 선제골을 만든 뒤, 황희찬(함부르크)의 추가골로 2-1 승리를 거두며 2연패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잘했어"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대회 마지막날인 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팔렐방 자카바링 스포츠 시티에서 열린 트라이애슬론 혼성 릴레이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대표팀이 마지막 주자인 허민호를 맞이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단일팀 금1·은1·동2 찬란한 성과

한달간 동고동락...평화·감동의 메시지 전 세계에 전파

국제종합대회 사상 두 번째로 결성된 남북단일팀이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찬란한 성과를 냈다.

관리장성 중국에 막혀 시상대 주인공이 되진 못했으나 여자농구 단일팀은 1일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제종합대회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꾸린 남북은 6개월 후 열린 아시안게임에선 3개 종목으로 '코리아'의 영역을 넓혔다.

조정, 카누 용선(드래곤보트), 여자농구에서 훗날 통일의 밑거름이 될 단일팀이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엔 올해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진

출이 포함됐다.

남북은 6월 28일 3개 종목 단일팀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북측 여자농구·조정·카누 선수들이 7월 29일 일제히 방남해 남측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다.

감독 8명과 선수 26명 등 34명의 북측 선수단이 방남했다. 우리 측 감독 5명과 선수 33명을 합쳐 감독·선수 포함 72명의 남북단일팀 '코리아'가 구성됐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은 촉박한 시일 탓에 겨우 보름 남짓 손발을 맞추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나섰다. 아쉽게도 1승도 못 올렸지만, 평화와 감동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 이들보다 합동 훈련 기간이 조금 길었던 이번 단일팀은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이라는 값진 결실을 수확했다.

감독의 서막은 카누 용선이 열려졌했다.

25일 열린 카누 용선 여자 200m 결선에서 56초 851로 동메달을 따냈다. 남북이 종합대회에서 합작한 첫 번째 메달이었다.

그로부터 하루 뒤 마침내 기다리던 금메달이 나왔다.카누 여자 남북단일팀은 26일 카누 용선 500m 결선에서 2분 24초 788로 우승해 시상대 정상을 점령했다. 파란색 한반도기가 게양되고 아리랑이 국가로 연주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완성됐다.

남자들도 질세라 힘을 냈다. 용선 남북단일팀은 남자 용선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조정에선 아쉽게 단일팀의 합작 메달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자농구가 대미를 장식해 비어 있던 단일팀의 은메달을 채웠다.

불과 한 달 남짓 호흡한 남북 선수들이 땀으로 이뤄낸 결정체라는 점에서 코리아의 메달은 각별하다. /연합뉴스